



[해설] 쿠팡 IPO 열기 티몬·11번가 줄줄이 '증시 노크' 03



Economy

코스피	3079.75 (-27.87)	코스닥	954.29 (-10.82)
금리 (미국 3년)	1.020 (+0.024)	환율 (원/달러)	1110.40 (+4.50) (22일)



26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작 2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뉴스스

삼성 텍사스공장 정전 장기화 전력 불안에, 팹 증설 재검토?

일주일 넘게 오스틴 공장 셧다운 최소 일주일 더 지나야 가동 예상 전력·수자원 등 불확실성 높아져 팹 증설 투자 자체 재검토 분석도

미국 텍사스 정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투자 계획이 완전히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는 최근 한파에 따라 정전 사태에 이어 수도 공급까지 중단했다.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오스틴 팹 재가동 시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 트렌드 포스는 최소 1주일 더 지나야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논의 중이던 오스틴 팹 증설 논의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오스틴 지방 정부와 추가 투자와 감세안을 협의중이었다.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며 오스틴 팹 증설을 암시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다소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피해가 심각한 만큼 투자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은 재난을 멈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팹 추가 투자 자



1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사우스 오스틴의 타겟 매장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사상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 복구되지 못하는 정전과 단수로 의식주 해결에 지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뉴스스

체를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팹은 안정적인 전력과 수자원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번 정전 사태로 오스틴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가 해외에 공장을 추가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전력과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베트남과 유럽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현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쉽지 않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은 한번 정전으로 대규모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뿐 아니라, 재가동까지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며 "전력 공급이 불안한 곳에는 자체적으로 발전 시설을 두는 것도 부담이라 투자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이례적인 사고인 만큼 투자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오스틴 팹이 이미 1998년부터 20여년간 가동하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고, 현지 인프라도 충분히 갖춘 만큼 굳이 다른 입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다.

단, 현지 지방 정부에 안정적으로 전력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요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은 사태 진정 후 삼성전자가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한파가 이례적인 일이라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후 현지 정부와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부동산 규제의 역설

아파트값 상승폭 줄었지만 목동 등 재건축지역은 강세

매매·전월세 거래량 감소

2·4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 들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재건축 이슈로 양천구 목동 등 일부지역 집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줄었다. 2·4 대책과 임대차2법 시행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아파트2단지(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7억4000만원, 목동아파트4단지(전용면적 96㎡)는 지난달 20억2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도 오름세다.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65㎡가 1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2월 14억8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4단지(전용면적 49㎡)는 12억4000만원에 거래된 지난달보다 1억원 가량 오른 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3·4단지 아파트도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다. 목동 2단지 3단지, 4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세 단지의 점수는 각각 52.31점, 51.92점, 51.66점이다.

호가는 오름세인 반면 거래 자체는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의 1월과 2월 매매 거래건

수는 9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건이 줄어든 수치다. 전·월세 거래건수도 마찬가지다. 1월부터 2월까지 거래량은 256건으로 1년 전 642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설 연휴가 겹친 데다 임대차2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학기를 마친 가구가 계속 머무르면서 신학기에 따른 신규 수요 유입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라며 "호가는 1억~2억원 가량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로 거래 자체는 많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17%에서 0.14%, 전세가격은 0.17%에서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 목동은 0.08%, 전세는 0.16% 올랐다. 부동산시장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표심 물이를 위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는 것도 재건축 기대 심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면 매수세도 분산되면서 하반기 거래량은 점점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저금리, 유동성 과잉 구조가 여전히 큰 폭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연우기자 yw964@

합의금 챙기고, 美수입금지 풀리고

메디톡스·대웅, 실리 챙긴 '보톡스 합의'

보툴리눔 독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오랜 분쟁이 4년여 만에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지분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두둑한 합의금, 로열티를 한꺼번에 챙기게 됐고, 대웅제약은 21개월 미국 수입금지 조치에서 풀려났다.

양사 모두 오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실익을 챙기게 됐다는 평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종결을 위해 미국 앨러간-에블루스·메디톡스가 3차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블루스의 지분 16.7%(676만여주)를 총 535억원에 취득한다. 지난 19일 종가 기준 12.29달러인 에블루스 주식을 주당 0.00001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메디톡스는 에블루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에블루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로 나보타의 해외 판

권을 갖고 있다.

합의금과 로열티도 챙긴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에블루스에 보툴리눔 독신 제품을 21개월간 미국에서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에블루스는 합의금으로 앞으로 2년간 앨러간과 메디톡스에 3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지급하게 된다. 또 21개월간 나보타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도 두 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로열티 지급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이번 합의를 통해 얻는 가치를 1490억원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메디톡스 매출액(1112억원)을 34% 상회하는 규모다.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30% 급등한 19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나보타 매출은 3500만 달러였다. 만약 ITC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에블루스의 나보타 매출액은 2020년

5800만 달러, 2021년에는 89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21년 매출 추정치 기준 약 6% 로열티를 가정할 경우, 메디톡스가 챙기는 기술료는 500만 달러에 달한다.

하나금융의 선임정 연구원은 "향후 메디톡스는 에블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 자사 독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의 판매를 에블루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에블루스와의 합의 가치를 1490억원으로 산정, 메디톡스의 주가를 43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미국 내 나보타 판매를 지속하게 되면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앞서 ITC는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대규모 소송 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다만, 국내 소송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에서 보툴리눔 독신 균주의 주인을 찾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lee@